

[환경]

태양광 이어 지열에너지 활용 광주 친환경 도시 만든다



푸른길 공원 객차 이듬지어주세요

광주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
18일까지 시민들에 공개모집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기증받은 객차 2량(사진)의 이름을 공모한다. 운동본부는 광주시 동구 학동 옛 남광주역 푸른길공원에 배치된 객차를 오는 28일 시민들에게 공개기로 하고 이에 앞서 객차의 이름과 슬로건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공모는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푸른길홈페이지(www.greenways.or.kr)에 올리거나 E-메일(greenway2002@hanmail.net)

로 보내면 된다. 입상작에는 1만~10만원의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수상작 이름으로 공원내 나무를 심어준다.

운동본부는 2량의 객차를 전시관과 방문자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등 시민문화놀이공간으로 꾸며 오는 28일 푸른길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작가들의 그림과 자료 등으로 오픈전시회를 갖는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2000년 광주 도심 경전선 구간이 폐쇄된 이후 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으로 이어지는 8.9km 구간이 나무를 심어 '푸른길 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가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공공건물에 적극 채택하는 등 친환경 도시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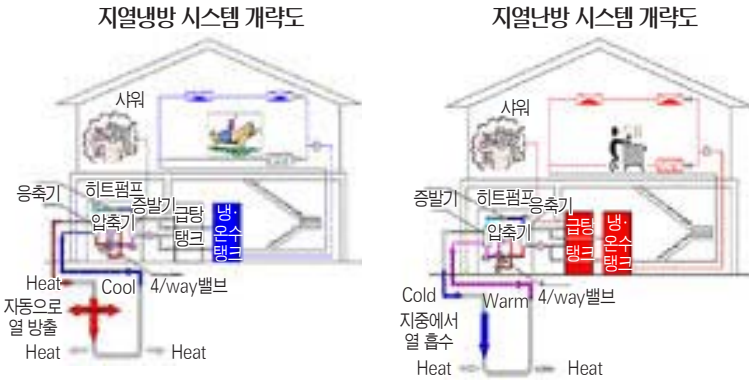
시는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인 신·재생에너지(햇빛·물·생물유기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태양광 도시를 선언, 시내 540곳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한데 이어 2 단계로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지열에너지를 공공 시설에 활발하게 채택하고 있다.

지열 시스템은 여름에는 지하수를 냉매로 활용해 실내의 더위를 땅 속으로 방출하고 겨울에는 바깥 공기와 지하수의 온도 차를 이용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첨단 냉·난방 설비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 지열시스템이 첫 도입된데 이어 오는 11월 준공되는 남구 노대동 '빛고을실버타운'에도 무공해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이 시공된다.

냉·난방 지열시스템이 설치되는 시설은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관 등이다. 시는 이 시스템이 냉·난방 효율이 우수할 뿐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빛고을 실버타운이 친환경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3월 착공되는 광산구 장덕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도 지열 시스



'빛고을 실버타운' 등 공공건물 냉·난방 설비 지열 시스템 도입... 자연 친화 공간으로 조성

템이 채택된다. 시는 현 하남산단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설립하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지열시스템을 도입,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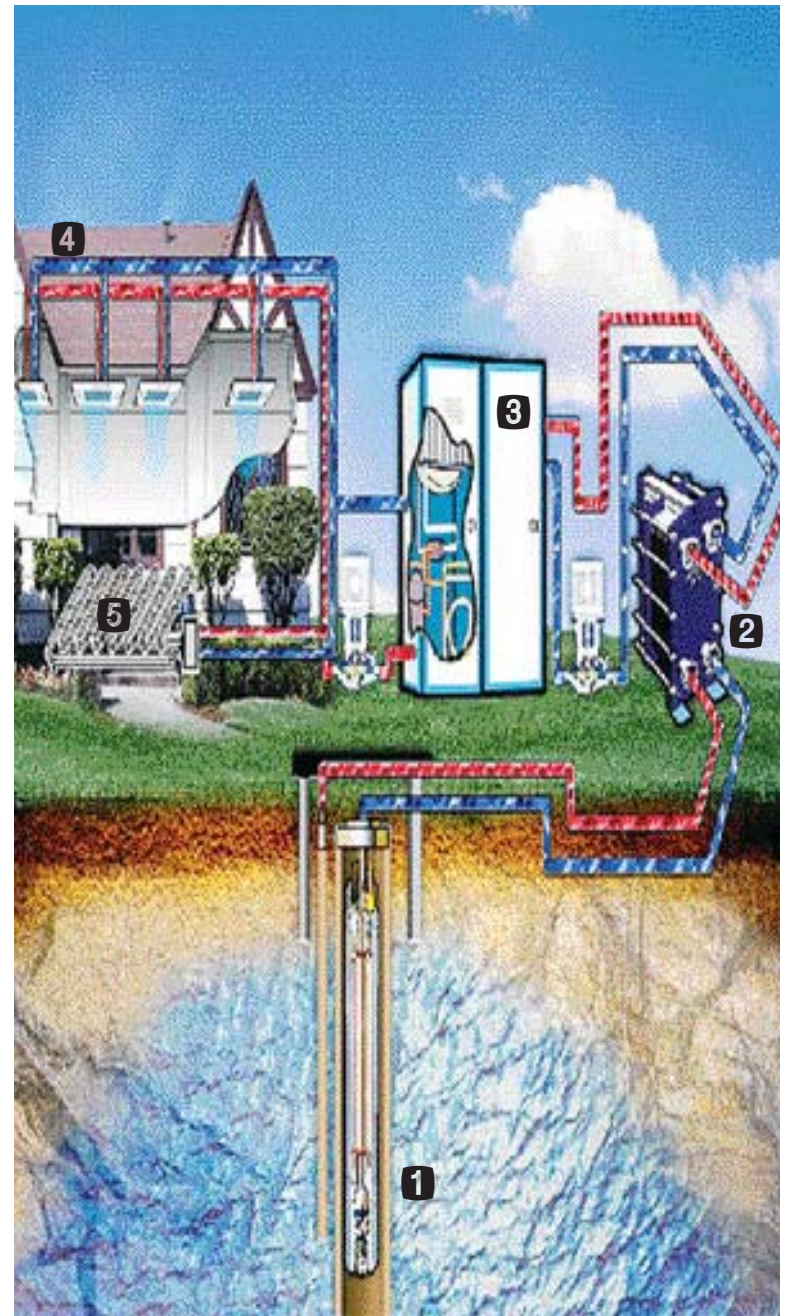
시는 내년 4월 준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2월 착공되는 영상복합 문화관(광주시 동구 서석동)에도 지열시스템이 채택된다. 영상문화관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영상박물관과 디지털 영상 관련 기술·정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2억2천100만원.

시는 영상복합문화관에 지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곳이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노동자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열시스템이 적용되는 공간은 휴게공간, 소공연장 등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신축 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에너지 도시로서 광주시의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열에너지 활용 개념도. 1심정(深井)을 통해 끌어올린 지하수를 파이프를 통해 보내주면 2열교환기에서 일정한 물 온도를 맞춰준 후 3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으로 바꿔줘 집 안으로 보내준다. 4천장 실내기과 5바닥코일을 통해 냉난방을 직접 공급해준다.

그린투어 참가자 모집

영산강유역환경청 25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생태 우수지역 및 환경기초 시설을 방문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2008년 그린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199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린투어는 학교, 기관, 단체, 위원회,

개인 등을 대상으로 환경청 관할 지역의 생태·경관 우수지역 및 환경기초 시설 등을 방문해 자연생태의 실태와 오염물질 처리과정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린투어 참가자는 오는 25일까지 모집하며 오는 3~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되는 10개 코스 중 1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나 062)605-5266으로 하면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호남운하' 저지 시민연대 19일 발족

영산강 호남운하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9일 가칭 '영산강 호남운하 저지 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발족식을 하고 저지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시민행동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준비회의를 통해 발족식 일정과 활동방향 등을 논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행동은 앞서 지난달 31일 영산강운하 건설 반대 입장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서면에서 "광주~목포, 전주~목포 간에 물류가 빈약하고, 주운거리가 짧고 운송시간이 육상운송에 비해 6배 이상 소요됨으로써 비효율적이며 시간 낭비적 수단이다. 수질개선효과가 기대되기보다 인공수로 조성으로 인한 조대형 토건사업으로 하천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자정능력이 저하돼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반도 대운하는 백지상태에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 청신호

올해 광주·전남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 등 하수도 사업에 1천551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투입돼 영산강·섬진강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2일 올해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30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천1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올해 사업비는 전국 환경청 전체 사업비 1조4천400억원의 15.1%에 해당하며 한강유역환경청(331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자체별로는 전남도가 1천4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 343억원, 경남(남해·하동)

224억원, 광주시 70억원 순이다.

총 1천551억원 규모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천289억원, 하수관거정비 701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345억원,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44억원 등 243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의 경우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분뇨처리시설 등 9개 사업에 70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별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용봉천 일대, 하남 일대 등 4곳의 하수관거정비에는 24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하수슬러지처리장 건설에 17억1천만원, 광산구와 동구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도 6

억2천만원이 배정됐다.

전남지역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등 234개 사업에 1천480억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강진군 성전면 영동, 고흥군 두원면 오수, 광양시 봉강면 부처, 나주시 다시면 중동, 보성군 노동면 봉동마을 등 102곳이 포함돼 286억2천만원 을 받게 된다.

범상류 하수확충사업으로는 장흥면 상류 지역인 유치면 반월·봉덕리에 2억1천여만원이 지원된다. 오수처리시설 지원대상에는 강진군 대구면 정수사와 광양시 진상면 일대 민

광주·전남 을 국고보조금 1,551억원 확보
오수처리·하수도 정비 등 243개 사업 추진

박 8곳이 포함됐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곡성군 옥곡면, 구례군 구례읍 등 38곳이 선정돼 384억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며, 공공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의 기타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54곳에 436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지방비 확보 부족으로 환경청 국고보조금 108억원이 회수됐으나 올해는 지방비가 106.6%까지 확보돼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such as location, price, and features. The listings are organized into columns and rows, with some highlighted in different colors. The text is in Korean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cy.